

몽골 돈육 시장조사

2024.07.



2024년 6월 30일자 매매기준율(하나은행) 적용
1 USD(달러) = 1,382원

[목 차]

I. 시장현황	5
1. 육류 시장현황	5
2. 돈육 시장현황	7
가. 생산현황 및 시장규모	7
나. 수출현황	10
다. 수입현황	11
 II. 유통 및 소비현황	 18
1. 유통 및 판매현황	18
2. 소비현황	23
 III. 제도 및 규정	 29
 IV. 결론 및 시사점	 31

몽골 돈육 시장조사

1. 시장현황

- (육류시장) '23년 전체 육류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7.9% 증가한 11억 4,860만 달러(약 1조 5,874억 원)
 - * 소비자의 구매력 및 생활 수준 향상으로 육류 수요 증가하며 시장 성장세
- (돈육시장) '23년 돈육 시장규모는 4억 8,580만 달러(약 6,714억 원), 4만 9,100톤으로 집계
 - * '19년 이후 시장 성장률은 금액/중량 기준 모두 주요 축종 중 가장 높은 수준
- (돈육생산) '22년(최신자료) 돈육 생산량은 약 323톤으로 '18년 이후 연평균 18.4%로 감소세
 - * 지리적·기후적 특성상 양돈업이 발달하지 못해 소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돈육수출) '19년 이후 돈육 수출실적은 집계되지 않음
- (돈육수입) '23년 돈육 수입액은 2,119만 7,000달러(약 293억 원), 수입량은 7,563톤
 - * 주요 품목은 '냉동 삼겹살 및 기타(HS Code 0203.29)'와 '냉동 넓적다리살/어깨살(HS Code 0203.22)'이며, 수입량 기준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81.1%), 중국(7.1%), 폴란드(6.4%), 독일(2.5%), 헝가리(1.2%) 순
 - * 한국산 돈육 수입량은 37톤(0.5%)으로 '19년 이후 연평균 35.4% 증가

2. 유통 및 소비현황

- (유통·판매) '23년 돈육 평균 소매가는 kg당 9.9달러(약 1만 3,682원)로 양·염소고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 몽골 시장에 진출한 국내 대형 유통채널(이마트)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적 다양한 돈육 제품이 판매되며, 이 외 현지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돈육은 매우 제한적
 - * 원산지가 한국으로 확인되는 제품은 런천미트(햄) 형태가 유일

- (돈육 소비) '23년 1인당 돈육 소비액은 140.9달러(약 19만 4,724원), 소비량은 14.2kg으로 전체 육류 소비 중 가장 높은 수준
- * 최근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법 확산
- * 한국 식품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접근성 제고로 한국식 돈육 소비 확대 추세

3. 제도 및 규정

- 한국과 몽골 간 수출 검역 협상 타결로 돈육 및 돈지방의 對몽골 수출 가능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가 비발생 조건이며, 몽골 정부의 수출도축장 및 가공장 승인 필요
- 수입 육류제품은 ISO, HACCP, GMP 등 국제 인증이 요구되며, 국제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몽골의 국가품질인증인 MNS(Mongolian National Standards) 취득 필요
- 몽골은 식품 첨가물 및 기타 위생요건에 관한 자체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국제 식품규격인 CODEX 기준을 따름

4. 결론 및 시사점

- 몽골은 양돈업 발달에 제한적인 환경으로 자국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 형성
- 다만 특정 국가(러시아)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한국산 돈육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경쟁력 확보 필요
- 한국 식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며 돈육 소비도 확대되는 추세로 제품 및 레시피의 확대 필요

I. 시장현황

1. 육류 시장현황

□ 2023년 몽골 육류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7.9% 증가한 11억 4,860만 달러(한화 약 1조 5,874억 원)로 2019년 이후 연평균 12.9% 증가

- 전체 시장은 신선육(88.4%)과 가공육(11.6%)으로 구분
 - 신선육 시장규모는 10억 1,500만 달러(한화 약 1조 4,027억 원)로 전년 대비 18.4%, 2019년 이후 연평균 13.3%의 높은 성장률 기록
 - 가공육 시장규모는 1억 3,260만 달러(한화 약 1,833억 원) 수준이나 이 역시 전년 대비 14.8%, 2019년 이후 연평균 9.5%로 증가
- 최근 몽골 소비자의 구매력 및 생활 수준 향상으로 육류 수요가 증가하며 시장 성장세

<표 1-1> 몽골 육류 시장규모(2019~2023)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023)	전년비 (22/23)	연평균 (19/23)
전체	707.5	752.7	814.0	973.0	1,147.6	100.0	17.9	12.9
- 신선육	615.4	657.3	713.7	857.5	1,015.0	88.4	18.4	13.3
- 가공육	92.13	95.35	100.3	115.5	132.6	11.6	14.8	9.5

*주1: 신선육은 우육(송아지 포함),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기금육 및 기타 가공육의 신선·냉장·냉동 형태의 육류를 의미

*주2: 가공육은 냉장 및 열처리한 육류제품, 건조·염장·훈제 처리된 모든 종류의 육류(햄, 베이컨, 소시지 포함)를 포함

*출처: Statista(검색일: 2024.06.24.)

□ 몽골 육류시장은 2024년 이후 연평균 12.9% 성장해 2028년 21억 8,050만 달러(한화 약 3조 135억 원)에 달할 전망

- 2028년 신선육 시장 비중은 90.4%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가공육 시장비중은 9.6%로 2023년 11.6% 대비 감소할 전망
 - 2024년 이후 신선육 시장규모는 연평균 13.3%의 증가율로 2028년 19억 7,200만 달러(한화 약 2조 7,253억 원)에 달할 전망이며, 가공육 시장규모는 2024년 이후 연평균 9.0% 증가해 2028년 2억 850만 달러(한화 약 2,881억 원)에 달할 전망

<표 1-2> 몽골 육류 시장전망(2024~2028)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비중 (2028)	연평균 (24/28)
전체	1,343.9	1,547.0	1,756.8	1,941.0	2,180.5	100.0	12.9
- 신선육	1,196.0	1,384.0	1,576.0	1,748.0	1,972.0	90.4	13.3
- 가공육	147.9	163	180.8	193	208.5	9.6	9.0

*주1: 신선육은 우육(송아지 포함),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기금육 및 기타 기금육의 신선·냉장·냉동 형태의 육류를 의미

*주2: 가공육은 냉장 및 열처리한 육류제품, 건조·염장·훈제 처리된 모든 종류의 육류(햄, 베이컨, 소시지 포함)를 포함

*출처: Statista(검색일: 2024.06.24.)

□ 2022년(최신자료) 육류 전체 생산량은 약 55만 4,546톤으로 전년 대비 29.1% 증가

- 몽골에서 생산되는 육류는 양고기(35.4%), 소고기(25.5%), 염소고기(21.8%), 말고기(14.9%) 순
- 신선·냉장 돼지고기 생산량은 266톤으로 전체 육류 생산의 0.05% 수준에 불과
 - 2018년 이후 돼지고기 생산량은 연평균 18.4%로 감소하는 추세

<표 1-3> 몽골 육류(신선·냉장) 생산현황(2018~2022)

(단위: 톤,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430,694	457,191	625,221	429,596	554,546	100.0	29.1	6.5
- 양고기	152,706	168,441	213,899	143,035	193,668	34.9	35.4	6.1
- 소고기(뼈 포함)	126,591	114,682	158,477	110,621	141,522	25.5	27.9	2.8
- 염소고기	83,623	89,634	129,163	97,734	121,089	21.8	23.9	9.7
- 말고기	57,193	70,812	105,881	64,553	82,633	14.9	28.0	9.6
- 낙타고기	9,689	12,546	16,975	13,155	15,001	2.7	14.0	11.5
- 닭고기	291	470	539	246	367	0.1	49.2	6.0
- 돼지고기(뼈 포함)	600	606	286	253	266	0.05	5.1	-18.4

*주: 신선·냉장 육류 기준으로, 냉동 육류와 식용설육은 포함되지 않음

*출처: FAO STAT(검색일: 2024.06.24.)

□ 2022년(최신자료) 식용설육 생산량은 약 12만 8,928톤으로 전년 대비 22.5% 증가

- 전체 생산량 중 양의 식용설육 비중이 35.8%로 가장 높고, 염소의 것(29.9%), 소의 것(24.1%), 말의 것(9.2%), 낙타의 것(1.0%) 순

- 돼지 식용설육 생산량은 57톤으로 전체의 0.04%에 불과하며, 2018년 이후 생산량은 연평균 18.3%로 감소

<표 1-4> 몽골 축종별 식용설육 생산현황(2018~2022)

(단위: 톤,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99,951	105,181	143,548	99,892	128,928	100.0	29.1	6.6
- 양의 것	36,359	40,105	50,928	34,056	46,111	35.8	35.4	6.1
- 염소의 것	26,607	28,520	41,097	31,097	38,528	29.9	23.9	9.7
- 소의 것	27,850	25,230	34,865	24,337	31,135	24.1	27.9	2.8
- 말의 것	8,212	10,168	15,203	9,269	11,865	9.2	28.0	9.6
- 낙타의 것	795	1,029	1,393	1,079	1,231	1.0	14.1	11.6
- 돼지의 것	128	129	61	54	57	0.04	5.6	-18.3

*주: 신선·냉장 육류 기준으로, 냉동 육류와 식용설육은 포함되지 않음

*출처: FAO STAT(검색일: 2024.06.24.)

2. 돈육 시장현황

가. 생산현황 및 시장규모

□ 2023년 돼지 사육 규모는 3만 2,736두(頭)로 전년 대비 24% 감소

- 이 중 식용돼지 사육 규모는 2만 5,636두로 전체 돼지 사육의 78.3% 차지
- 2023년 역대 최악의 조드(Dzud)¹⁾로 몽골 전역에서 사육되는 가축 470만 마리가 폐사함
 - 국제적십자위원회(IFRC²⁾)에 따르면 2023년 11월 이후 몽골 유목민(최소 2,250개 집단)이 기르는 가축의 70% 이상이 이상기후로 폐사한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2024년 기후 이상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1,03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1) 극심한 한파와 폭설로 심각한 가축의 폐사를 유발하는 겨울의 기상이변을 지칭하는 용어

2)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 Red Crescent Societies

<표 1-5> 몽골 돼지 사육현황(2019~2023)

(단위: 마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2/23)	연평균 (19/23)
돼지 전체	25,500	29,184	36,541	43,060	32,736	100.0	-24.0	6.4
- 식용돼지	20,892	24,531	30,577	34,798	25,636	78.3	-26.3	5.2
- 모돈(반식용 암퇘지)	4,608	4,653	5,964	8,262	7,100	21.7	-14.1	11.4

*출처: 몽골국립통계청(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Mongolia)(검색일: 2024.06.24.)

□ 2022년(최신자료) 돈육 생산량은 약 323톤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지만 2018년 이후 연평균 18.4%로 감소세

- 돈육 생산량의 82.4%는 ‘돼지고기(뼈 포함)’로 나타나며, ‘돼지 식용설육’ 생산 비중은 17.6%로 나타남
 - 돈육 생산량은 266톤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으나, 2019년 이후 연평균 18.4%의 감소세를 보이며, 돼지 식용설육 생산량은 57톤으로 2019년 이후 연평균 18.3%로 감소
- 2019년 몽골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며 2020년 돈육 생산량은 전년 대비 52.8% 감소
- 또한 지속적인 기후변화는 몽골 돈육 사육에 영향을 미치며 생산량 감소에 기인
 - 몽골의 기후변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 기온이 0.75℃ 상승한 데 비해 몽골의 평균 기온은 세계 평균 대비 3배 높은 수준인 2.25℃가 상승
 - 이러한 기후변화로 몽골의 기후적 특징인 조드(Dzud)³⁾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몽골 내 돈육 양돈 생산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
 - 육돈의 적정 사육온도는 15~20℃ 수준으로 온도 편차가 크면 돼지생식기 호흡기증후군(PRRS),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PMWS), 돼지호흡기복합 감염증(PRDC), 돼지유행성설사(PED)등 가축질병 발생 확률이 높아짐

3) 극심한 한파와 폭설로 심각한 가축의 폐사를 유발하는 겨울의 기상이변을 지칭하는 용어

<표 1-6> 몽골 돈육 생산현황(2018~2022)

(단위: 톤,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돈육 전체	728	735	347	307	323	100.0	5.2	-18.4
- 돼지고기(뼈포함)	600	606	286	253	266	82.4	5.1	-18.4
- 돼지 식용설육	128	129	61	54	57	17.6	5.6	-18.3

*출처: FAO STAT(검색일: 2024.06.24.)

□ 2023년 몽골 돈육 시장규모는 4억 8,580만 달러(한화 약 6,714억 원), 4만 9,100톤으로 2019년 이후 시장 성장률은 금액/중량 기준 모두 주요 축종 중 가장 높은 수준

- (금액 기준) 몽골 전체 육류시장에서 돈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47.9%로 2019년 이후 연평균 시장 성장률은 14.1%

<표 1-7> 몽골 돈육 시장규모(2019~2023) - 금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2/23)	연평균 (19/23)
육류 전체	615.4	657.3	713.7	857.5	1,015.0	100.0	18.4	13.3
축종별 - 돈육	286.6	305.9	331.9	404.6	485.8	47.9	20.1	14.1
- 가금육	159.6	170.5	185.3	217.9	251.1	24.7	15.2	12.0
- 우육(송아지 포함)	69.6	73.9	79.7	94.5	110.7	10.9	17.1	12.3
- 양·염소고기	29.3	31.4	34.3	41.0	48.3	4.8	17.8	13.3
- 기타	70.3	75.5	82.5	99.6	118.6	11.7	19.1	14.0

*출처: Statista(검색일: 2024.06.30.)

- (중량 기준) 몽골 전체 육류시장 중 돈육의 비중은 42.9%로 2019년 이후 연평균 시장 성장률은 6.2%

<표 1-8> 몽골 돈육 시장규모(2019~2023) - 중량 기준

(단위: 천 톤,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2/23)	연평균 (19/23)
육류 전체	94.74	101.6	107.2	111.2	114.5	100.0	3.0	4.8
축종별 - 돈육	38.6	41.6	44.3	46.8	49.1	42.9	4.9	6.2
- 가금육	34.6	37.1	39.0	39.7	40.0	34.9	0.8	3.7
- 우육(송아지 포함)	10.8	11.4	11.7	12.1	12.3	10.7	1.7	3.3
- 양·염소고기	2.1	2.3	2.3	2.4	2.5	2.2	4.2	4.5
- 기타	8.7	9.3	9.8	10.2	10.6	9.3	3.9	5.1

*출처: Statista(검색일: 2024.06.30.)

□ 2028년 몽골 돈육 시장은 9억 6,910만 달러(한화 약 1조 3,393억 원), 6만 5,700톤 규모에 달할 전망

- 2024년 이후 돈육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금액 기준 13.9%, 중량 기준 5.8%에 달해 전체 축종 중 가장 높은 성장세 전망

<표 I-9> 몽골 돈육 시장전망(2024~2028) - 금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전년비 (27/28)	연평균 (24/28)
육류 전체		1,196.0	1,384.0	1,576.0	1,748.0	1,972.0	12.8	13.3
축 종 별	- 돈육	575.6	669.4	765.8	854.9	969.1	13.4	13.9
	- 가금육	295.8	342.1	389.0	427.7	480.5	12.3	12.9
	- 우육(송아지 포함)	128.2	146.0	164.8	180.6	201.8	11.7	12.0
	- 양·염소고기	56.5	65.0	73.3	81.0	91.0	12.3	12.7
	- 기타	139.6	161.6	183.1	203.6	229.6	12.8	13.2

*출처: Statista(검색일: 2024.06.30.)

<표 I-10> 몽골 돈육 시장전망(2024~2028) - 중량 기준

(단위: 천 톤,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전년비 (27/28)	연평균 (24/28)
육류 전체		121.9	129.4	137.1	142.6	149.2	4.6	5.2
축 종 별	- 돈육	52.5	56.0	59.6	62.5	65.7	5.1	5.8
	- 가금육	42.5	45.1	47.8	49.3	51.4	4.3	4.9
	- 우육(송아지 포함)	12.9	13.5	14.1	14.6	15.1	3.4	4.0
	- 양·염소고기	2.6	2.8	2.9	3.0	3.2	6.7	5.3
	- 기타	11.3	12.0	12.7	13.2	13.9	5.3	5.3

*출처: Statista(검색일: 2024.06.30.)

나. 수출현황

□ 몽골의 돈육 수출실적은 집계되지 않음('19~'23 기준)

HS Code		품목	수출실적('19~'23)
0203.	19	신선·냉장 기타 돈육(삼겹살 및 기타)	×
	22	냉동 돈육 넓적다리살/어깨살(뼈 있는 것)	×
	29	냉동 기타 돈육(삼겹살 및 기타)	×
0206.	41	냉동 식용설육(돼지간)	×
	49	냉동 식용설육(돼지의 것, 기타)	×
0210.	12	염장·건조·훈제한 돈육(삼겹살/절단육)	×
	19	염장·건조·훈제한 돈육(기타)	×
1602.	41	조제·보존처리한 돈육(넓적다리살/절단육)	×
	42	조제·보존처리한 돈육(어깨살/절단육)	×
	49	조제·보존처리한 돈육(기타, 혼합물 포함)	×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4.06.28.)

다. 수입현황

□ 2023년 돈육 수입액은 2,119만 7,000달러(한화 약 293억 원), 수입량은 7,563톤으로 집계

- (수입규모) ‘19년 이후 연평균 47.5%의 높은 증가율 기록, 주요 품목은 ‘냉동 삼겹살 및 기타(HS Code 0203.29)’와 ‘냉동 넓적다리살/어깨살(HS Code 0203.22)’
 - ‘냉동 삼겹살 및 기타(HS Code 0203.29)’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1,523만 4,000달러(한화 약 211억 원)로 전체 돈육 수입의 71.9% 차지
 - ‘냉동 넓적다리살/어깨살(HS Code 0203.22)’ 수입액은 전년 대비 91.7% 증가한 379만 달러(한화 약 52억 원)로 전체 돈육 수입의 17.9% 차지
 - 이 외 ‘조제·보존처리한 삼겹살 및 기타(HS Code 1602.49)’ 129만 7,000달러(한화 약 18억 원)(6.1%), ‘염장·건조·훈제한 삼겹살/절단육(HS Code 0210.12)’ 59만 5,000달러(한화 약 8억 원)(2.8%) 등이 수입

<표 1-11> 몽골 돈육 수입규모(2019~2023)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023)	(단위: 천 달러, %)	
							전년비 (22/23)	연평균 (19/23)
합계	4,481	6,827	18,062	17,612	21,197	100.0	20.4	47.5
냉동 넓적다리살/어깨살 (HS Code 0203.22)	51	498	1,292	1,977	3,790	17.9	91.7	193.6
냉동 삼겹살 및 기타 (HS Code 0203.29)	3,522	4,987	14,597	13,585	15,234	71.9	12.1	44.2
냉동 돼지간 (HS Code 0206.41)	0	0	5	0	8	0.0	-	-
냉동 식용설육 기타 (HS Code 0206.49)	190	328	448	335	186	0.9	-44.5	-0.5
염장·건조·훈제 삼겹살/절단육 (HS Code 0210.12)	86	243	493	332	595	2.8	79.2	62.2
염장·건조·훈제 기타 돈육 (HS Code 0210.19)	0	3	22	21	0	-	-100.0	-
조제·보존처리 넓적다리살/절단육 (HS Code 1602.41)	180	128	14	80	23	0.1	-71.3	-40.2
조제·보존처리 어깨살/절단육 (HS Code 1602.42)	239	244	283	220	64	0.3	-70.9	-28.1
조제·보존처리 삼겹살 및 기타 (HS Code 1602.49)	213	396	908	1,062	1,297	6.1	22.1	57.1

*주1: HS Code 0203.22(냉동돈육 넓적다리살·어깨살/뼈있는 것), 0203.29(냉동 기타 돈육, 삼겹살 및 기타), 0206.41(냉동 식용설육/돼지간), 0206.49(냉동 식용설육/돼지의 것, 기타), 0210.12(염장·건조·훈제한 돈육, 삼겹살/절단육), 0210.19(염장·건조·훈제한 돈육, 기타), 1602.41(조제·보존처리한 돈육, 넓적다리살/절단육), 1602.42(조제·보존처리한 돈육, 어깨살/절단육), 1602.49(조제·보존처리한 돈육, 기타/혼합물 포함) 기준

*주2: HS Code 0203.19(신선·냉장 기타 돈육 / 삼겹살 및 기타)의 수출통계는 집계되지 않음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4.06.28.)

- (수입량) ‘19년 이후 연평균 48.6%의 증가율 기록, 주요 품목인 ‘냉동 삼겹살 및 기타(HS Code 0203.29)’ 수입량은 5,536톤(73.2%), ‘냉동 넓적다리살/어깨살(HS Code 0203.22)’ 수입량은 1,354톤(17.9%)으로 집계
 - ‘조제·보존처리한 삼겹살 및 기타(HS Code 1602.49)’ 수입량은 333톤 (2.8%), ‘냉동 식용설육/기타 돼지의 것(HS Code 0206.49)’ 수입량은 233톤(3.1%)으로 나타남
 - 이 외 ‘염장·건조·훈제한 삼겹살/절단육(HS Code 0210.12)’ 수입량은 81톤, ‘조제·보존처리한 어깨살/절단육(HS Code 1602.42)’ 12톤, ‘냉동 돼지간 (HS Code 0206.41)’ 9톤, ‘조제·보존처리한 넓적다리살/절단육(HS Code 1602.41)’ 5톤 등이 수입되나 비중은 미미한 편

<표 1-12> 몽골 돈육 수입량(2019~2023)

(단위: 톤,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023)	전년비 (22/23)	연평균 (19/23)
합계	1,551	2,497	6,592	6,215	7,563	100.0	21.7	48.6
냉동 넓적다리살/어깨살 (HS Code 0203.22)	14	169	424	648	1,354	17.9	109.0	213.6
냉동 삼겹살 및 기타 (HS Code 0203.29)	1,163	1,782	5,218	4,743	5,536	73.2	16.7	47.7
냉동 돼지간 (HS Code 0206.41)	-	-	4	-	9	0.1	-	-
냉동 식용설육 기타 (HS Code 0206.49)	183	340	519	380	233	3.1	-38.7	6.2
염장·건조·훈제 삼겹살/절단육 (HS Code 0210.12)	27	33	72	53	81	1.1	52.8	31.6
염장·건조·훈제 기타 돈육 (HS Code 0210.19)	-	0	1	2	-	0.0	-100.0	-
조제·보존처리 넓적다리살/절단육 (HS Code 1602.41)	39	28	3	9	5	0.1	-44.4	-40.2
조제·보존처리 어깨살/절단육 (HS Code 1602.42)	72	61	68	56	12	0.2	-78.6	-36.1
조제·보존처리 삼겹살 및 기타 (HS Code 1602.49)	53	84	283	324	333	4.4	2.8	58.3

*주1: HS Code 0203.22(냉동돈육 넓적다리살·어깨살/뼈있는 것), 0203.29(냉동 기타 돈육, 삼겹살 및 기타), 0206.41(냉동 식용설육/돼지간), 0206.49(냉동 식용설육/돼지의 것, 기타), 0210.12(염장·건조·훈제한 돈육, 삼겹살/절단육), 0210.19(염장·건조·훈제한 돈육, 기타), 1602.41(조제·보존처리한 돈육, 넓적다리살/절단육), 1602.42(조제·보존처리한 돈육, 어깨살/절단육), 1602.49(조제·보존처리한 돈육, 기타/혼합물 포함) 기준

*주2: HS Code 0203.19(신선·냉장 기타 돈육 / 삼겹살 및 기타)의 수출통계는 집계되지 않음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4.06.28.)

- (수입단가) ‘23년 수입돈육 평균 단가는 톤당 3,157달러(한화 약 436만 원)로 전년 대비 28.4% 감소
- 주요 수입품목인 ‘냉동 삼겹살 및 기타(HS Code 0203.29)’ 수입단가는 톤당 2,752달러(한화 약 380만 원), ‘냉동 넓적다리살/어깨살(HS Code 0203.22)’ 수입단가는 톤당 2,799달러(한화 약 387만 원)로 나타남
- 전체 수입품목 중 ‘염장·건조·훈제한 삼겹살/절단육(HS Code 0210.12)’ 수입단가가 톤당 7,346달러(한화 약 1,015만 원)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냉동 식용설육/기타 돼지의 것(HS Code 0206.49)’ 수입단가가 톤당 798달러(한화 약 110만 원)로 가장 낮은 수준

<표 I -13> 몽골 돈육 수입단가(2019~2023)

(단위: 달러/톤,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비 (22/23)	연평균 (19/23)
평균	2,539	3,040	5,427	4,406	3,157	-28.4	5.6
냉동 넓적다리살/어깨살 (HS Code 0203.22)	3,643	2,947	3,047	3,051	2,799	-8.3	-6.4
냉동 삼겹살 및 기타 (HS Code 0203.29)	3,028	2,799	2,797	2,864	2,752	-3.9	-2.4
냉동 돼지간 (HS Code 0206.41)	-	-	1,250	-	889	-	-
냉동 식용설육 기타 (HS Code 0206.49)	1,038	965	863	882	798	-9.5	-6.4
염장·건조·훈제 삼겹살/절단육 (HS Code 0210.12)	3,185	7,364	6,847	6,264	7,346	17.3	23.2
염장·건조·훈제 기타 돈육 (HS Code 0210.19)	-	-	22,000	10,500	-	-100.0	-
조제·보존처리 넓적다리살/절단육 (HS Code 1602.41)	4,615	4,571	4,667	8,889	4,600	-48.3	-0.1
조제·보존처리 어깨살/절단육 (HS Code 1602.42)	3,319	4,000	4,162	3,929	5,333	35.7	12.6
조제·보존처리 삼겹살 및 기타 (HS Code 1602.49)	4,019	4,714	3,208	3,278	3,895	18.8	-0.8

*주1: HS Code 0203.22(냉동돈육 넓적다리살·어깨살/뼈있는 것), 0203.29(냉동 기타 돈육, 삼겹살 및 기타), 0206.41(냉동 식용설육/돼지간), 0206.49(냉동 식용설육/돼지의 것, 기타), 0210.12(염장·건조·훈제한 돈육, 삼겹살/절단육), 0210.19(염장·건조·훈제한 돈육, 기타), 1602.41(조제·보존처리한 돈육, 넓적다리살/절단육), 1602.42(조제·보존처리한 돈육, 어깨살/절단육), 1602.49(조제·보존처리한 돈육, 기타/혼합물 포함) 기준

*주2: HS Code 0203.19(신선·냉장 기타 돈육 / 삼겹살 및 기타)의 수출통계는 집계되지 않음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4.06.28.)

□ 2023년 기준 몽골의 돈육 수입국 총 12개국으로, 이 중 러시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

- (수입액 기준) 러시아산 돈육 수입액은 전년 대비 26.2% 증가한 1,630만 달러(한화 약 225억 원)로 전체 수입의 76.9% 차지
 - 뒤이어 폴란드 185만 2,000달러(한화 약 26억 원)(8.7%), 중국 122만 6,000달러(한화 약 17억 원)(5.8%), 헝가리 69만 2,000달러(한화 약 10억 원)(3.3%), 독일 42만 2,000달러(한화 약 6억 원)(2.1%) 순으로 집계
 - 한국산 돈육 수입액은 전년 대비 7.9% 감소한 19만 9,000달러(한화 약 2억 7,502만 원)로 전체 수입의 0.9%를 차지하며 수입 상위 7위에 위치, '19년 이후 몽골의 한국산 돈육 수입액은 연평균 40.5% 증가

<표 1-14> 몽골 돈육 주요 수입국(2019~2023) - 수입액 기준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023)	전년비 (22/23)	연평균 (19/23)
합계	4,481	6,827	18,062	17,612	21,197	100.0	20.4	47.5
1 러시아	1,571	3,844	11,679	12,916	16,300	76.9	26.2	79.5
2 폴란드	2,230	2,005	4,810	3,082	1,852	8.7	-39.9	-4.5
3 중국	-	-	-	106	1,226	5.8	1,056.6	-
4 헝가리	286	278	432	491	692	3.3	40.9	24.7
5 독일	10	66	390	334	452	2.1	35.3	159.3
6 네덜란드	161	299	196	111	209	1.0	88.3	6.7
7 대한민국	51	83	107	216	199	0.9	-7.9	40.5
8 벨기에	171	244	333	220	165	0.8	-25.0	-0.9
9 덴마크	-	-	-	-	73	0.3	-	-
10 이탈리아	-	-	-	-	14	0.1	-	-

*주1: HS Code 0203.22(냉동돈육 넓적다리살·어깨살/뼈있는 것), 0203.29(냉동 기타 돈육, 삼겹살 및 기타), 0206.41(냉동 식용설육/돼지간), 0206.49(냉동 식용설육/돼지의 것, 기타), 0210.12(염장·건조·훈제한 돈육, 삼겹살/절단육), 0210.19(염장·건조·훈제한 돈육, 기타), 1602.41(조제·보존처리한 돈육, 넓적다리살/절단육), 1602.42(조제·보존처리한 돈육, 어깨살/절단육), 1602.49(조제·보존처리한 돈육, 기타/혼합물 포함) 기준

*주2: HS Code 0203.19(신선·냉장 기타 돈육 / 삼겹살 및 기타)의 수출통계는 집계되지 않음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4.06.28.)

- (수입량 기준) 러시아산 돈육 수입량이 전년 대비 36.7% 증가한 6,135톤으로 전체 수입의 81.1% 차지
 - 뒤이어 중국 537톤(7.1%), 폴란드 484톤(6.4%), 독일 188톤(2.5%), 헝가리 93톤(1.2%) 순으로 나타남
 - 한국산 돈육 수입량은 전년도와 동일한 37톤으로 전체 수입의 0.5%를 차지하며 수입 상위 6위국에 위치, '19년 이후 몽골의 한국산 돈육 수입량은 연평균 35.4% 증가

<표 1-15> 몽골 돈육 주요 수입국(2019~2023) - 수입량 기준

(단위: 톤,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023)	전년비 (22/23)	연평균 (19/23)
합계	1,551	2,497	6,592	6,215	7,563	100.0	21.7	48.6
1 러시아	558	1,659	4,321	4,487	6,135	81.1	36.7	82.1
2 중국	-	-	-	45	537	7.1	1,093.3	-
3 폴란드	820	647	1,874	1,261	484	6.4	-61.6	-12.3
4 독일	2	10	173	191	188	2.5	-1.6	211.4
5 헝가리	74	40	62	78	93	1.2	19.2	5.9
6 대한민국	11	17	21	37	37	0.5	0.0	35.4
7 네덜란드	35	62	42	21	35	0.5	66.7	0.0
8 벨기에	49	61	75	56	32	0.4	-42.9	-10.1
9 덴마크	-	-	-	-	17	0.2	-	-
10 프랑스	-	-	2	-	2	0.0	-	-

*주1: HS Code 0203.22(냉동돈육 넓적다리살·어깨살/뼈있는 것), 0203.29(냉동 기타 돈육, 삼겹살 및 기타), 0206.41(냉동 식용설육/돼지간), 0206.49(냉동 식용설육/돼지의 것, 기타), 0210.12(염장·건조·훈제한 돈육, 삼겹살/절단육), 0210.19(염장·건조·훈제한 돈육, 기타), 1602.41(조제·보존처리한 돈육, 넓적다리살/절단육), 1602.42(조제·보존처리한 돈육, 어깨살/절단육), 1602.49(조제·보존처리한 돈육, 기타/혼합물 포함) 기준

*주2: HS Code 0203.19(신선·냉장 기타 돈육 / 삼겹살 및 기타)의 수출통계는 집계되지 않음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4.06.28.)

○ (수입단가) ‘23년 원산지별 수입단가는 러시아 > 헝가리 > 네덜란드 > 벨기에 > 이탈리아 순

- 주요 수입국인 러시아산 돈육 수입단가는 톤당 2,287달러(한화 약 316만 원)로 전체 수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
- 한국산 돈육의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54.9% 감소한 722달러(한화 약 100만 원)/톤으로 상위 7위 수준이며, '19년 이후 수입단가는 연평균 8.0%로 감소세

<표 1-16> 몽골 돈육 주요 수입국별 단가(2019~2023)

(단위: 달러/톤,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비 (22/23)	연평균 (19/23)
평균	2,539	3,040	5,427	4,406	3,157	-28.4	5.6
1 러시아	1,117	934	1,089	1,360	2,287	68.2	19.6
2 헝가리	1,293	1,511	1,475	1,403	1,679	19.7	6.7
3 네덜란드	511	1,062	519	587	1,377	134.5	28.1
4 벨기에	388	444	1,810	437	1,147	162.8	31.1
5 이탈리아	-	-	-	-	1,111	-	-
6 덴마크	-	-	-	-	1,022	-	-
7 대한민국	1,008	1,079	1,619	1,602	722	-54.9	-8.0
8 폴란드	627	920	1,347	2,285	624	-72.7	-0.1
9 중국	-	-	-	262	599	128.9	-
10 프랑스	-	-	556	-	389	-	-

*주1: HS Code 0203.22(냉동돈육 넓적다리살·어깨살/뼈있는 것), 0203.29(냉동 기타 돈육, 삼겹살 및 기타), 0206.41(냉동 식용설육/돼지간), 0206.49(냉동 식용설육/돼지의 것, 기타), 0210.12(염장·건조·훈제한 돈육, 삼겹살/절단육), 0210.19(염장·건조·훈제한 돈육, 기타), 1602.41(조제·보존처리한 돈육, 넓적다리살/절단육), 1602.42(조제·보존처리한 돈육, 어깨살/절단육), 1602.49(조제·보존처리한 돈육, 기타/혼합물 포함) 기준

*주2: HS Code 0203.19(신선·냉장 기타 돈육 / 삼겹살 및 기타)의 수출통계는 집계되지 않음

*주3: 평균 수입단가는 주요 수입품목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함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4.06.28.)

□ 2023년 몽골의 한국산 돈육 수입액은 19만 9,000달러(한화 약 2억 7,502만 원), 수입량은 37톤으로 집계되며, ‘조제·보존 처리한 돈육(HS Code 1602류)’ 이 대부분을 차지

- (수입규모) ‘23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7.9% 감소하였으나, ‘19년 이후 수입액은 연평균 40.5%로 큰 증가세를 보임
- 한국산 돈육 주요 수입품목은 ‘조제·보존처리한 삼겹살 및 기타(HS Code 1602.49)’로 전체 수입의 99.5%에 달하는 19만 8,000달러(한화 약 2억 7,364만 원)가 수입
- ‘조제 보존처리한 넓적다리살/절단육(HS Code 1602.41)’ 수입액은 1,000달러(한화 약 138만 원)로 전년 대비 98.7% 감소하였고, ‘조제·보존처리한 어깨살/절단육(HS Code 1602.42)’ 수입액은 ‘21년 5,000달러(한화 약 691만 원) 이후 집계되지 않음

<표 1-17> 몽골 한국산 돈육 수입규모(2019~2023)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023)	전년비 (22/23)	연평균 (19/23)
합계	51	83	107	216	199	100.0	-7.9	40.5
조제·보존처리 넓적다리살/절단육 (HS Code 1602.41)	18	35	13	77	1	0.5	-98.7	-51.5
조제·보존처리 어깨살/절단육 (HS Code 1602.42)	1	0	5	-	-	0.0	-	-100.0
조제·보존처리 삼겹살 및 기타 (HS Code 1602.49)	32	48	89	139	198	99.5	42.4	57.7

*주: HS Code 1602.41(조제·보존처리한 돈육, 넓적다리살/절단육), 1602.42(조제·보존처리한 돈육, 어깨살/절단육), 1602.49(조제·보존처리한 돈육, 기타/혼합물 포함) 기준, 이 외 품목의 수입실적은 집계되지 않음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4.06.28.)

- (수입량) ‘23년 한국산 돈육 수입량은 37톤으로 집계되며, ‘19년 이후 수입량은 연평균 35.4% 증가
- ‘조제·보존처리한 삼겹살 및 기타(HS Code 1602.49)’ 비중이 97.3%(36톤)에 달함

<표 1-18> 몽골 한국산 돈육 수입량(2019~2023)

(단위: 톤,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023)	전년비 (22/23)	연평균 (19/23)
합계	11	17	21	37	37	100.0	0.0	35.4
조제·보존처리 넓적다리살/절단육 (HS Code 1602.41)	4	8	3	8	1	2.7	-87.5	-29.3
조제·보존처리 어깨살/절단육 (HS Code 1602.42)	0	-	1	-	-	0.0	-	-
조제·보존처리 삼겹살 및 기타 (HS Code 1602.49)	7	9	17	29	36	97.3	24.1	50.6

*주: HS Code 1602.41(조제·보존처리한 돈육, 넓적다리살/절단육), 1602.42(조제·보존처리한 돈육, 어깨살/절단육), 1602.49(조제·보존처리한 돈육, 기타/혼합물 포함) 기준, 이 외 품목의 수입실적은 집계되지 않음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4.06.28.)

○ (수입단가) '23년 한국산 돈육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3,250달러(한화 약 449만 원)로 전년 대비 54.9% 감소

- 주요 수입품목인 '조제·보존처리한 삼겹살 및 기타(HS Code 1602.49)' 수입단가는 톤당 5,500달러(한화 약 760만 원)로 나타나며, '조제·보존처리한 넓적다리살/절단육(HS Code 1602.41)' 수입단가는 톤당 1,000달러(한화 약 138만 원)로 큰 편차를 보임
- '조제·보존처리한 삼겹살 및 기타(HS Code 1602.49)' 수입단가는 '19년 이후 연평균 4.7%로 증가하는 반면, '조제·보존처리한 넓적다리살/절단육(HS Code 1602.41)' 수입단가는 '19년 이후 연평균 31.3%로 크게 감소

<표 1-19> 몽골 한국산 돈육 수입단가(2019~2023)

(단위: 달러/톤,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비 (22/23)	연평균 (19/23)
평균	4,536	4,854	4,856	7,209	3,250	-54.9	-8.0
조제·보존처리 넓적다리살/절단육 (HS Code 1602.41)	4,500	4,375	4,333	9,625	1,000	-89.6	-31.3
조제·보존처리 어깨살/절단육 (HS Code 1602.42)	-	-	5,000	-	-	-	-
조제·보존처리 삼겹살 및 기타 (HS Code 1602.49)	4,571	5,333	5,235	4,793	5,500	14.8	4.7

*주: HS Code 1602.41(조제·보존처리한 돈육, 넓적다리살/절단육), 1602.42(조제·보존처리한 돈육, 어깨살/절단육), 1602.49(조제·보존처리한 돈육, 기타/혼합물 포함) 기준, 이 외 품목의 수입실적은 집계되지 않음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4.06.28.)

II. 유통 및 소비현황

1. 유통 및 판매현황

□ 2023년 돈육 평균 소매가는 kg당 9.9달러(한화 약 1만 3,682원)로 2019년 이후 연평균 7.4% 증가

- 몽골 내 돼지고기 소매 판매가격은 양·염소고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기타 육류 제외)

<표 II-1> 몽골 신선 돈육 소매가격(2019~2023)

(단위: 달러/kg,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비 (22/23)	연평균 (19/23)
육류 평균		6.50	6.47	6.66	7.71	8.86	14.9	8.1
축 종 별	- 양·염소고기	13.9	14.00	14.67	16.94	19.39	14.5	8.7
	- 돈육	7.43	7.35	7.49	8.65	9.90	14.5	7.4
	- 우육(송아지 포함)	6.45	6.50	6.79	7.84	8.98	14.5	8.6
	- 가금육	4.62	4.60	4.75	5.48	6.28	14.6	8.0
	- 기타 육류	8.10	8.11	8.42	9.73	11.14	14.5	8.3

*출처: Statista(검색 일: 2024.06.30.)

□ 몽골에서 돈육을 포함한 육류는 도축 후 도소매를 거쳐 유통되는 일반적인 구조⁴⁾를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의 육류 작업장은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

- 몽골 보건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몽골 내 육류 생산을 위한 도축 시설은 98개소, 육류 가공시설은 80개소로 집계
 - 2018년 이후 5년간 평균 전체 육류 생산량의 6.2%에 해당하는 약 3만 5,700톤의 육류가 해당 시설에서 도축 및 가공되었으며, 현재 몽골 육류 작업장(도축장 및 가공장)의 활용률은 작업 가능 수준의 10% 미만으로 나타남

4)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에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Meatheim △Mongol pork by altan taria △Slava 등 대형 돼지고기 가공업체에서 납품함

- 몽골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AFCCP)과 국가전문감독청(GASI, General Agency for Specialty Inspection)의 조사에 따르면 몽골 내 주요 육류 도축장(Emeelt 등)의 육류 생산과정은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건강, 안전 및 위생 기준에 미달
 - 몽골은 자국 식품법에 도축장의 위생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축은 공인된 검사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
 - 당국의 조사 결과 육류 작업장에서의 안전 및 위생 기준은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당국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142개 육류제품 생산업체를 조사한 결과 93%(77개소)의 육류 공장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별도의 실험실을 보유하지 않음과 동시에 도축 및 가공과 관련한 전문 전문인력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34.3%(24개소)는 위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환경에서 인증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몽골 정부는 자국 내 동물의 전염성 질병 발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에 공급되는 동물성 제품의 청결 및 위생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
 - 또한 2016년 몽골 농림축산식품부는 육류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2개소의 신규 육가공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몽골 시장에 진출한 국내 대형 유통채널(이마트)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적 다양한 돈육 제품이 판매되며, 이 외 현지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돈육은 매우 제한적

- 몽골 이마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신선/냉장/냉동 돈육은 삼겹살이 주를 이루며 이 외 목살, 항정살, 등심, 앞다리살 등이 일부 판매
- 해당 플랫폼에서는 돈육 가공품은 훈제한 돈육과 소시지, 런천미트(햄), 돈육을 주재료로 한 가정간편식(HMR)⁵⁾ 등이 판매

5) Home Meal Replacement의 약어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일종의 즉석식품을 의미

<표 II-2> 몽골에서 판매 중인 삼겹살 제품(신선/냉장/냉동)

제 품 사 진			
제 품 유 형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가 격	MNT88,500	MNT28,480	MNT19,800
중 량	5kg	900g	1kg
원 산 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제 품 사 진			
제 품 유 형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가 격	MNT13,480	MNT22,800	MNT19,800
중 량	1kg	900g	1kg
원 산 지	러시아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제 품 사 진			
유 형	대 패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가 격	MNT19,880	MNT26,530	MNT17,780
중 량	900g	1kg	1kg
원 산 지	확인 불가	몽골	확인 불가
제 품 사 진			
제 품 유 형	삼겹살	돈육(목살, 향정살, 삼겹살)	돈육(목살, 향정살, 삼겹살)
가 격	MNT11,480	MNT28,800	MNT35,800
중 량	450g	900g	1.2kg
원 산 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출처: Amtat mal(amtatmall.mn), E-mart(emartmall.mn)(검색일: 2024.06.25.)

<표 II-3> 몽골에서 판매 중인 돈육 기타 부위(신선/냉장/냉동)

제 품 사 진			
제 품 유 형	목살	목살	항정살
가 격	MNT25,800	MNT13,200	MNT26,800
중 량	900g	450g	900g
원 산 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제 품 사 진			
제 품 유 형	항정살	등심	등심
가 격	MNT13,800	MNT20,800	MNT24,119
중 량	450g	400g	890g
원 산 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몽골
제 품 사 진			
유 형	등심	어깨살(앞다리살)	앞다리살
가 격	MNT22,800	MNT27,100	MNT19,480
중 량	800g	450g	900g
원 산 지	확인 불가	몽골	확인 불가

*출처: Amtat mal(amtatmall.mn), E-mart(emartmall.mn)(검색일: 2024.06.25.)

<표 II-4> 몽골에서 판매 중인 돈육 가공품

제 품 사 진			
제 품 유 형	훈제 삼겹살	훈제 돈육	훈제 돈육
가 격	MNT10,480	MNT10,480	MNT20,680
중 량	200g	200g	-
원 산 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제 품 사 진			
제 품 유 형	훈제 뒷다리살	만티와 돼지고기 요리(냉동)	양념돼지갈비
가 격	MNT20,550	MNT24,690	MNT34,390
중 량	400g	770g	1.2kg
원 산 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제 품 사 진			
유 형	소시지 병조림	소시지	소시지
가 격	MNT6,500	MNT10,280	MNT17,350
중 량	180g	450g	600g
원 산 지	네덜란드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제 품 사 진			
제 품 유 형	런천미트	런천미트	통조림 햄
가 격	MNT14,900	MNT11,000	MNT12,900
중 량	200g	340g	340g
원 산 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네덜란드

*출처: Amtat mal(amtatmall.mn), E-mart(emartmall.mn)(검색일: 2024.06.25.)

2. 소비현황

□ 2023년 1인당 돈육 소비액은 140.9달러(한화 약 19만 4,724원), 소비량은 14.2kg으로 집계

- (소비액) 전체 육류 소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육류 전체 소비액 294.3달러(한화 약 40만 6,723원) 중 47.9% 차지
 - 1인당 연간 돈육 소비액은 전년 대비 18.3%, 2019년 이후 연평균 12.3% 증가해 주요 축종 중 가장 소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

<표 II-5> 몽골 돈육 소비규모 - 1인당 연평균 소비액

(단위: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2/23)	연평균 (19/23)
육류 전체		190.4	199.5	213.2	252.3	294.3	100.0	16.6	11.5
축 종 별	- 돈육	88.67	92.85	99.15	119.1	140.9	47.9	18.3	12.3
	- 가금육	49.39	51.77	55.34	64.11	72.85	24.8	13.6	10.2
	- 우육(송아지 포함)	21.53	22.42	23.82	27.81	32.11	10.9	15.5	10.5
	- 양·염소고기	9.07	9.55	10.24	12.05	14.02	4.8	16.3	11.5
	- 기타	21.74	22.92	24.65	29.3	34.39	11.7	17.4	12.1

*출처: Statista(검색일: 2024.06.30.)

- (소비량) 전체 육류 소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육류 전체 소비량 33.2kg의 42.8% 차지
 - 특히 1인당 연평균 돈육 소비량은 전 세계 평균(4.7kg) 대비 세 배 이상 높은 수준
 - 2019년 이후 1인당 연간 돈육 소비량은 연평균 4.5% 증가해 주요 축종 중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표 II-6> 몽골 돈육 소비규모 - 1인당 연평균 소비량

(단위: kg,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2/23)	연평균 (19/23)
육류 전체		29.3	30.9	32	32.7	33.2	100.0	1.5	3.2
축 종 별	- 돈육	11.9	12.6	13.2	13.8	14.2	42.8	2.9	4.5
	- 가금육	10.7	11.2	11.7	11.7	11.6	34.9	-0.9	2.0
	- 우육(송아지 포함)	3.3	3.5	3.5	3.5	3.6	10.8	2.9	2.2
	- 양·염소고기	0.7	0.7	0.7	0.7	0.7	2.1	0.0	0.0
	- 기타	2.7	2.8	2.9	3	3.1	9.3	3.3	3.5

*출처: Statista(검색일: 2024.06.30.)

□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이 발달한 몽골은 양고기, 염소고기, 말고기 등 다양한 육류 및 유제품을 이용한 음식이 많음

- 땅이 척박하고 강수량이 부족해 농사에 부적합한 지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목 생활을 하는 특성상 쉽게 구할 수 있는 육류 위주의 식단이 발달함
- 전통적으로 양고기나 염소고기, 말고기 소비가 보편적이었으나 최근 돼지고기의 선호도가 높아지며 수요 증가
 - 전통적으로 몽골은 양고기와 소고기를 주로 소비했지만, 도시화 및 해외 문화 유입으로 다양한 식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인접 국가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함
 - 또한 최근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단백질, 비타민B군, 미네랄 등이 풍부해 비교적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돼지고기 섭취를 선호하는 추세를 보임
- 그러나 몽골의 지리적·기후적 특성상 양돈업이 발달하지 못해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돼지는 사료를 많이 급여해야 하는 축종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원활한 사육이 어려우며, 몽골의 기후 여건은 돼지 사육에 적합하지 않음⁷⁾
 - 2023년 기준 몽골의 돈육(신선·냉장·냉동) 수입량은 전체 육류 수입의 24.1%를 차지하며 상위 2위 수준에 기록되었으나, 수출량은 2019년 이후 집계되지 않음

7) 돼지 사육의 적정 기후조건은 15~20℃ 수준이나 몽골의 평균 기온은 여름철 27℃, 겨울철 -46℃로 연교차가 매우 심한 것이 특징

<표 II-7> 몽골 육류 수입현황(2019~2023)

(단위: 톤,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023)	전년비 (22/23)	연평균 (19/23)
합계	17,122	21,291	29,173	32,650	38,754	100.0	18.7	22.7
가금육과 식용설육 (신선·냉장·냉동) (HS Code 0207)	13,215	15,059	18,120	22,532	26,350	68.0	16.9	18.8
돼지고기(신선·냉장·냉동) (HS Code 0203)	2,050	3,357	7,437	7,412	9,358	24.1	26.3	46.2
돼지 비계와 가금의 비계 (HS Code 0209)	1,466	2,455	2,989	2,184	2,485	6.4	13.8	14.1
소·돼지·면양·염소·말·당나귀 ·노새·버새의 식용설육 (HS Code 0206)	225	380	523	400	276	0.7	-31.0	5.2
면양·염소고기(신선·냉장·냉동) (HS Code 0204)	119	-	-	-	100	0.3	-	-4.3
염장·건조·훈제한 육과 식용설육 (HS Code 0210)	27	33	75	55	81	0.2	47.3	31.6
쇠고기(냉동) (HS Code 0202)	3	7	4	2	55	0.1	2650.0	106.9
쇠고기(신선·냉장) (HS Code 0201)	17	-	25	60	45	0.1	-25.0	27.6
기타 육과 식용설육 (신선·냉장·냉동) (HS Code 0208)	-	-	-	5	4	0.01	-20.0	-

*주: HS Code 02류(육과 식용설육) 기준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4.06.30.)

<표 II-8> 몽골 육류 수출현황(2019~2023)

(단위: 톤,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023)	전년비 (22/23)	연평균 (19/23)
합계	40,266	20,651	9,885	11,781	46,786	100.0	297.1	3.8
말·당나귀·노새·버새 고기 (신선·냉장·냉동) (HS Code 0205)	30,834	17,568	6,950	6,718	32,907	70.3	389.8	1.6
면양·염소고기(신선·냉장·냉동) (HS Code 0204)	7,042	1,802	1,692	4,490	12,634	27.0	181.4	15.7
소·돼지·면양·염소·말·당나귀 ·노새·버새의 식용설육 (HS Code 0206)	2,358	1,201	1,238	390	1,001	2.1	156.7	-19.3
쇠고기(냉동) (HS Code 0202)	-	-	-	137	242	0.5	76.6	-
염장·건조·훈제한 육과 식용설육 (HS Code 0210)	32	80	5	8	2	0.004	-75.0	-50.0
기타 육과 식용설육 (신선·냉장·냉동) (HS Code 0208)	-	-	-	-	-	-	-	-
돼지고기(신선·냉장·냉동) (HS Code 0203)	-	-	-	-	-	-	-	-
쇠고기(신선·냉장) (HS Code 0201)	-	-	-	38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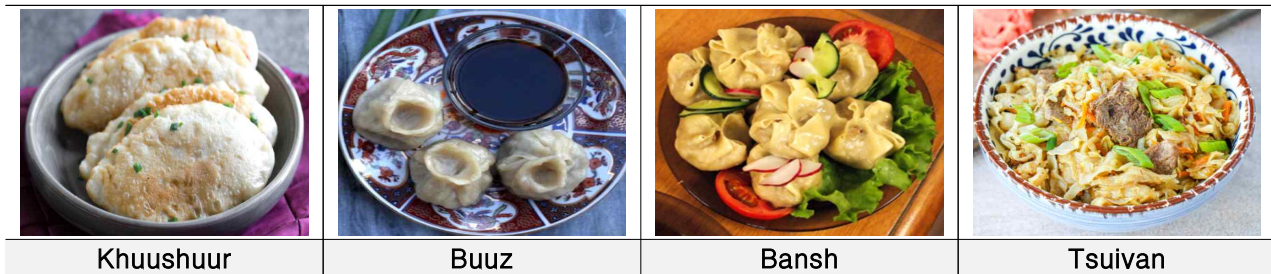
*주: HS Code 02류(육과 식용설육) 기준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4.06.30.)

□ 몽골은 소·양·말·염소 등 기타 육류의 소비가 많은 국가로 전통적으로 돼지고기 외 타 축종의 육류를 활용한 요리가 다양하게 존재

- 육류를 사용한 요리는 주로 만두와 유사한 형태나 볶음 요리가 주를 이룸
 - (Khuushuur) 양고기나 소고기로 만드는 몽골식 고기 페이스트리
 - (Buuz) 양고기로 만드는 몽골식 찐만두
 - (Bansh) 양고기나 소고기로 만든 만두 형태의 음식으로 삶거나 찌서 먹음
 - (Tsuivan) 고기(양고기나 소고기 등)와 채소를 볶은 몽골식 국수 요리

<그림 II-1> 몽골 육류 활용 요리



*출처: kitchencoup.com, adamantkitchen.com, .agfg.com.au, [/tarasmulticulturaltable.com](http://tarasmulticulturaltable.com)(검색일: 2024.06.25.)

- 최근 몽골 내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며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법이 확산되는 추세
 - 돼지고기는 주로 여러 채소와 양념을 가해 구이나 찜, 볶음 등으로 소비되며, 한국식 양념 돼지불고기 조리법도 현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알려짐

<그림 II-2> 몽골 돼지고기 활용 요리



			
만티(Мантуу) ⁸⁾ 를 곁들인 돼지고기 구이	양념을 넣고 졸인 돼지고기 수육	중국식 돼지고기 찜	돼지고기 꼬치구이

*출처: ARKHANGAIMN, Facebook(@Bayan kitchen, @Goodmom), CAAK.MK, YouTube(@DELGERS, @Tavanbogd international LLC), <https://cmsg.mongolcontent.mn/r/oykw2>(검색일: 2024.06.25.)

□ 몽골 내 한국 문화 유입 및 한국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며 한국 음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

- 국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에 체류하는 몽골인은 5만 3,038명⁹⁾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수준
 - 한국 생활을 경험한 몽골인은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식 음식과 문화에 대한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매김함
- 또한 높은 시장 성장 가능성으로 국내 주요 기업이 몽골에 진출하며 한국의 식문화 전파에 기여
 -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를 필두로 롯데마트, CU, GS25 등 다양한 유통업체가 몽골 시장에 진출했고, 커피, 햄버거, 베이커리 등 국내 주요 식품 프랜차이즈가 몽골에 진출
 - 2017년 이마트는 몽골 최초로 3,306㎡(약 1,000평) 면적 규모의 대형마트를 설립. 당시 몽골에는 식품, 패션, 리빙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한 번에 취급하는 복합쇼핑몰이 없어 몽골 이마트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유일한 장소로 인식되며 큰 인기를 끌¹⁰⁾
 - 국내 주요 식음료 프랜차이즈(뚜레쥬르, 맘스터치, 롯데리아, 메가커피 등)도 몽골 시장에 진출하며 현지 K-푸드에 대한 수요를 충족
 - 국내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는 2023년 진출해 울란바토르에 6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2017년 시장에 진출한 롯데리아 역시 5호점을 오픈
 -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는 2023년 5월 몽골 시장 진출 이후 35%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

8) 만두류 음식 중 하나로 튀르키예, 중앙아시아 등에서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메뉴

9) 이는 동년 몽골 전체 인구(약 340만 명)의 1.6%에 달하는 수준

10) 몽골 이마트 1호점 개점 당일 약 3천 명의 인파가 몰리며 몽골 소비자의 큰 관심을 입증함

- 몽골 내 한국 식품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접근성 제고로 삼겹살을 포함한 돼지고기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 발생
 - 기존 몽골 내 돈육 소비는 덩어리 형태로 찌거나 삶아 먹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몽골 이마트에서 돈육을 슬라이스 형태로 판매하기 시작하며 가정에서도 삼겹살을 프라이팬에 구워 먹는 등 소비 패턴이 발생
 - 또한 현지 한식당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지며 돼지고기구이(삼겹살 등), 제육볶음 등 돈육을 사용한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도 늘어나는 추세

<그림 II-3> 몽골 내 한국식 돼지고기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 메뉴

			
돼지고기 구이	제육볶음	삼겹살	목살

*출처: Instagram(@samgyeopsalhousebxu, @koreanbbq_zalaat), <https://qrmenu.mn/>(검색일: 2024.06.26.)

III. 제도 및 규정

□ 한국과 몽골 간 수출 검역 협상 타결로 돈육 및 돈지방의 對몽골 수출 가능

-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가 비발생 조건이며, 몽골 정부로부터 수출도축장 및 가공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몽골 정부로부터 수입허가증(Import Permit)을 받은 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수출 검역을 거쳐 수출 가능

□ 몽골의 육류 수입은 당국 승인(사전허가) → 수입신고 → 수입 검역 → 관세납부 및 반출 순으로 진행

- (사전허가) 농축산물에 해당하는 수입 제품은 몽골 내 수입 업체를 통해 국가 당국에 신고 후 허가(승인)를 받아야 함
 - 동식물성 식품 및 원재료를 처음으로 몽골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품명, 종류, 지역, 국가, 원산지명을 상차 30일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함
- (수입신고) 몽골 관세청에서 승인한 세관신고서 및 통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제반 서류에는 계약서, 운송서류,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수출 당국이 발행한 서류(육류제품의 경우 수출 검역증명서), 실험실 시험보고서(필요 시) 등이 포함
- (수입검역) 2018년 몽골의 「동식물, 동식물 원재료, 제품의 몽골 국경 진입 시 검역 통제, 검사에 관한 법」이 개정되며 몽골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검역 의무를 보유
 - 수입검역은 화물의 위험도에 따라 △높음 △중간 △낮음으로 구분되며, ‘낮음’에 해당하는 화물은 서류심사 위주로 통관을 진행하나 ‘높음’에 해당하는 제품은 서류, 물품검수, 시험검사가 수반될 수 있음
 - 또한 동식물, 동식물을 원재료로 하는 화물은 가축 질병과 관련한 검역 및 검사를 실시함
 - 몽골로 수입되는 동식물 및 이를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원산지는 동물성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국가/지역이어야 하고, 검역 시 국가전 문검역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표 III-1> 몽골 수입검역 시 제출 서류(동식물 및 동식물 원료 제품에 한함)

- 동물, 식물, 제품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및 그와 유사한 서류
- 동물, 식물, 제품을 운송할 운송수단 종류, 차종, 도로 경로
- 해당 국경 지역, 기간
- 원자재, 제품 수량, 가공상태(반가공, 원재료, 냉동, 신선 등), 포장, 상표, 품질, 안전성에 대한 정보

○ (관세납부 및 반출) 서류검사 및 물품검사 이후 관세율에 따른 통관 세금 납부 후 물품 반출 가능

- 몽골의 돈육(신선/냉장) 제품 수입 관세는 5%이며,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몽골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가입으로 2021년 1월 1일부로 일부 품목에 특혜관세(APTA 협정세율)가 적용되나 돈육에는 해당되지 않음

□ 몽골로 수입되는 육류제품은 ISO, HACCP, GMP 등의 국제 인증을 보유해야 함

- 해당 국제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몽골의 국가품질 인증인 MNS(Mongolian National Standards)를 취득 필요
- 해당 인증은 몽골표준계량원(Mongolian Agenc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MASM)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HS Code 02류에 해당하는 육류 제품이 ISO, HACCP 등 국제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MNS 인증을 취득해야 함

□ 몽골은 식품 첨가물 및 기타 위생요건에 관한 자체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국제 식품규격인 CODEX 기준을 따름

- CODEX 육류위생규정(CAC/RCP 58-2005)에서는 인간 소비에 적합하고 안전한 육류 생산을 위해 동물의 수송, 도축 및 가공, 후처리(보관, 유통, 포장) 등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를 포괄하는 기준을 마련
- 또한 미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과 시험방법에 대한 규격이 설정되어 있음

IV. 결론 및 시사점

- 몽골 소비자의 구매력 및 생활 수준 향상으로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이후 돈육 시장규모는 연평균 14.1% 증가하며 주요 축종 중 가장 높은 성장세 기록
 - 2023년 몽골 돈육 시장규모는 4억 8,580만 달러(한화 약 6,714억 원), 4만 9,100톤 수준으로 집계
 - 몽골은 지리적·기후적 특성상 양돈업이 발달하지 못해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¹¹⁾
 - 2022년(최신자료) 몽골의 신선·냉장 돈육 생산량은 266톤으로 전체 육류 생산의 0.05% 수준에 불과하며, 2018년 이후 돈육 생산량은 연평균 18.4%로 감소하는 추세
 - 2019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몽골의 지속적인 기후변화는 돈육 사육에 영향을 미치며 생산량 감소에 기인
- 2023년 돈육 수입액은 2,119만 7,000달러(한화 약 293억 원), 수입량은 7,563톤으로 ‘냉동 삼겹살 및 기타¹²⁾’와 ‘냉동 넓적다리살/어깨살¹³⁾’이 주로 수입
 - ‘냉동 삼겹살 및 기타’ 수입량은 5,536톤(73.2%), ‘냉동 넓적다리살/어깨살’ 수입량은 1,354톤(17.9%)으로 전체 수입 물량의 91.1% 차지
 -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로, 2023년 러시아산 돈육 수입량은 전체 수입의 81.1% 차지
 - 뒤이어 중국 537톤(7.1%), 폴란드 484톤(6.4%), 독일 188톤(2.5%), 헝가리 93톤(1.2%) 순이며, 한국산 돈육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의 0.5%(수입량 기준 상위 6위)에 불과

11)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몽골의 돈육 수출실적은 집계되지 않음

12) HS Code 0203.29

13) HS Code 0203.22

- 2023년 몽골의 한국산 돈육 수입액은 19만 9,000달러(한화 약 2억 7,502만 원), 수입량은 37톤으로 집계되며, ‘조제·보존 처리한 돈육(HS Code 1602류)’이 대부분을 차지
- ‘조제·보존처리한 삼겹살 및 기타’ 수입액은 19만 8,000달러(한화 약 2억 7,364만 원)로 전체 한국산 돈육 수입의 99.5% 차지
- 또한 수입량을 기준으로 ‘조제·보존처리한 삼겹살 및 기타’ 비중은 97.3%(36톤)에 달함

□ 몽골 내 돼지고기 소매 판매가격은 양·염소고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2023년 평균 소매가는 kg당 9.9달러(한화 약 1만 3,682원)로 2019년 이후 연평균 7.4% 증가

- 몽골 시장에 진출한 국내 대형 유통채널(이마트)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적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며, 이 외 현지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돈육은 매우 제한적
- 한국산으로 확인되는 제품은 햄(런천미트) 형태가 유일
- 2023년 1인당 돈육 소비액은 140.9달러(한화 약 19만 4,724원), 소비량은 14.2kg으로 전체 육류 소비 중 가장 높은 수준
- 최근 몽골 내 돈육 수요 증가로 온라인에서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법이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 식품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접근성 제고로 삼겹살을 포함한 돼지고기 소비도 확대 추세

□ 對몽골 수출 가능 품목은 돈육 및 돈지방으로, 몽골 정부로부터 수출작업장(도축장 및 가공장) 승인 필요

- 對몽골 돈육 수출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비발생 조건이며, 몽골 정부로부터 수입허가증(Import Permit)을 받은 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수출 검역을 거쳐 수출 가능

- 몽골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육류제품에 ISO, HACCP, GMP 등의 국제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만일 국제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몽골의 국가품질인증인 MNS(Mongolian National Standards)를 취득해야 함
- 또한 몽골은 식품 첨가물 및 기타 위생요건에 관한 자체 기준이 없어 국제 식품규격인 CODEX 기준을 따름

□ 최근 몽골 내 돈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산 돈육의 시장 점유율은 매우 미미한 상황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몽골은 양돈업 발달에 제한적인 환경으로 자국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 형성
- 다만 특정 국가(러시아)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한국산 돈육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경쟁력 확보 필요
 - 2023년 기준 러시아산 돈육의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2,287달러(한화 약 316만 원)로 전체 수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한국산 돈육은 이보다 세 배 가량 저렴한 722달러(한화 약 100만 원)/톤으로 나타남
 - 몽골 수입 돈육 시장에서 한국산의 가격경쟁력은 확보되어 있으나, 공급량 측면에서 비중이 매우 미미하므로,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
- 한국 식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며 돈육 소비도 확대되는 추세로 제품 및 레시피의 확대 필요
 - 현지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한국산으로 원산지가 확인되는 제품은 돈육 가공품(햄)이 유일하며, 몽골에서 알려진 한국식 돼지고기 소비 방법은 구이(삼겹살 등)나 제육볶음, 돼지불고기 소수의 레시피에 한정
 - 이에 현지 소비자가 보다 다양하게 한국산 돈육을 소비할 수 있도록 1) 물량 공급 확대 2) 한국식 돼지고기 레시피 홍보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
2	STATISTA(https://www.statista.com)
3	ITC Trademap(https://www.trademap.org/)
4	몽골 통계청 (https://www.1212.mn/)
5	몽골 관세청 (https://caps.gaali.mn/)
6	대한민국 통계청(https://kosis.kr/)
7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eminwon.qia.go.kr/)
8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http://kmta.or.kr/)
9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MEAT, CAC/RCP 58-2005, CODEX
10	Survey on the Domestic and Export Meat Value Chain in Mongolia, UNCTAD
11	Beyond the Pandemic: Transforming Food Systems in Mongolia, United Nation(2021.06.18)
12	Mongolian dzud: Extreme weather puts 90% of country at 'high risk', UN News(2024.02.09)
13	Гахай н махны ач тус, ХҮНЦ(2022.12.09)
14	Жэюг бугим буюу амталж шарсан гахай н мах хий х арга, ARKHANGAIMN(2017.01.12)
15	Мах бэлтгэх нядалгааны 12 үй лдвэр барина, Newsmn(2016.05.13)
16	Мах, маха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үй лдвэрий н ихэнх нь лабораторигүй , Мэдээллий н МОНЦАМЭ агентлаг(2019.06.27)
17	Монгол Улсад мал төхөөрөх 98, мах боловсруулах 80 үй лдвэр үй 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даг, DARDAS.MN(2022.06.08)
18	Хоолны жор: Гахай н шарсан хавирга, gogo(2024.03.31)
19	"한식 코너 꼭 찻어요"...K푸드 열풍에 몽골인들 '복적복적', 한국경제신문(2023.06.22)
20	'버거부터 커피까지' K프랜차이즈, 몽골서 제대로 먹혔다, 이투데이(2024.06.04)
21	걸리면 100% 죽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국 이어 몽골에서도 발생, 경향신문(2019.01.18)
22	더 뜨거워진 몽골에서 벌어진 끔찍한 죽음, 오마이뉴스(2024.04.18.)
23	몽골, 극심한 추위에 '470만 마리' 가축 잃어, 위클리서울(2024.03.22)
24	몽골로 향하는 K-기업들...전략은?, BUZA.biz(2024.07.03)
25	몽골에서도 삼겹살에 소주 한잔, 자유일보(2023.08.09)
26	몽골인 육류 소비량 세계 15위...육류 준비부터 판매에 이르는 과정 , NEWS VISION(2021.08.14)
27	이마트 몽골 3호점 오픈!, 신세계그룹 뉴스룸(2019.09.03)
28	이마트, 몽골 3호점 오픈..."몽골인들, 삼겹살·김밥 찾아", 이투데이(2019.09.03)
29	이마트는 왜 몽골로 갔나?, 신세계그룹 뉴스룸(2019.11.27)